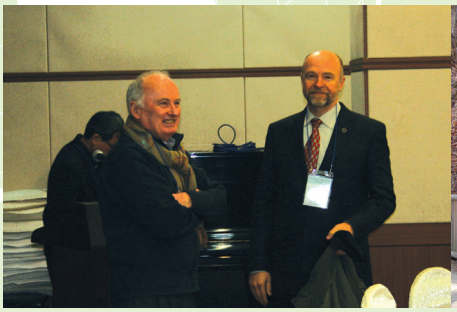
CALS newsletter
No. 12 2010. 6. 1.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박은우, 편집인 : 임정빈
편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김진모 · 배정한 · 서학수 · 양태진 · 이중용 · 임상준 · 최진용 · Hong Sok(Brian) Kim)

세계로 나아가는 농생대

# Global CALS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Damien Mugavin 교수(왼쪽)와 산림과학부 Victor K. Teplyakov 교수



WCU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교수진

**농생대가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학생의 모습을 캠퍼스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직접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오늘도 밝게 불 밝힌 연구실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농생대의 오늘의 모습을 짚어본다.**

## 세계화 된 강의실

현재 농생대에는 외국인 교수 9명(WCU 교수 5명 포함), 외국인 학생 및 연구원 113명(학부 7명, 석박사 95명, 연구원 11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화 지표로 사용되는 영어강의 비율(학부+대학원)은 2008년 6.2%에서 2009년 10.4%로 확대되었다. 특히 학부 강좌의 경우 2008년 2.8%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9%까지 급성장하였다.

## 농학분야 세계 순위 41위

서울대의 농학분야는 2009년 세계 순위(SCI논문 실적 평가) 4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년(1998~2008년)간의 평균 순위가 79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가파른 성장세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이는 1998년 이후 농생대의 연구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지원으로 2009년 농생대에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이 설치되었다. 세계적인 석학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농생명과학, 의학, 수의학 및 공학의 결합을 통해 생명공학기술을 발굴하는 융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농생대는 현재 13개국 37개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2005년 이후 15개 기관과 협력을 체결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유전학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으로 인정받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와 박사과정 복수학위(Dual Degree) 제도를 공동 운영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외국 대학과 박사과정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것은 서울대 농생대가 처음이다.

## Global Leader 양성

학생들은 농생대에서 마련한 CALS Global Challenger, 해외 인턴십, 재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나가 직접 세계의 농산업 현장을 체험한다. 또한 CALS English Proficiency Program을 통해서는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CNN 뉴스 및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어 교육을 통해 농생대 안에서 세계를 간접 체험하고 국제감각을 기르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Global Leader 양성에 힘쓰고 있다.

2면 농생대 헤드라인
평창 신리초교, 서울대 방문

1면 _ Global CALS
2면 _ 창의적연구 신규과제
3면 _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4~5면 _ 농생대 인사이드
6면 _ 동문탐방
7면 _ 언론에 비친 농생대
8면 _ 농생대 사람들

# 평창 신리초교 학생들, 서울대 방문

##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인근에 위치한 신리초교 전교생 서울대 찾아

■ 귀한 손님들이 농생대를 찾았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건립 중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개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신리초등학교의 20명의 어린이와 8명의 교사들이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대를 방문한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는 아이들은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개미 등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며 탄성을 연발했다. 유치반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교생이 23명인 신리초등학교. 매년 현장학습을 하긴 하지만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험실 장비를 보는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관악캠퍼스를 이곳저곳을 둘러본 아이들은 서울대에 들어오도록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라며, 나중에 과학자가 되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또한 아이들은 남산서울타워와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리초등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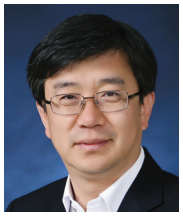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연구단지가 들어서면 학생 수가 다시 200명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우 학장은 지역과 함께 하는 연구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황인규 교수, 창의적연구 신규과제 선정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최도일(도약연구) · 이전제(핵심연구) 교수



황인규 교수



최도일 교수



이전제 교수

■ 황인규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연구책임을 맡은 '세균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집단행동 연구단' 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 지원하는 창의적연구사업의 신규 연구단으로 선정되었다. 창의적연구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우수 연구리더로 육성하고자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구 프로그램으로 황 교수는 자연계에서 세균 세포들이 집단을 이루며 어떻게, 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여 의사소통 후 어떠한 표현적 특징을 나타내어 집단으로서 행위를 하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에서 개편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최도일 교수(식물생산과학부)와 이전제 교수(산림과학부)가 신규 선정되었다. 최도일 교수는 세부 지원분야 중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수행한 연구와 일관된 주제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연구사업의 도전연구에 선정되어 '전체유전체 분석을 통한 가지과 식물의 병저항성 유전자와 역병균effector의 상호작용 기작 연구' 를 수행한다. 이전제 교수는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 및 학제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핵심연구에 선정되어 '목재의 재료적 특성을 고려한 비파괴검사법의 적용을 통한 열화 평가' 를 과제로 연구한다.

# 세계적 교과서에 연구성과 소개



■ 암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억제 연구에서 핵심적인 전달체 기술을 제시했던 농생명공학부 조종수 교수팀 연구가 세계적인 교과서에 상세히 소개되는 성과를 올렸다.

유전자 치료법과 관련해 RNA 간섭을 일으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siRNA 전달체 연구에 획기적 논문을 발표한 조 교수팀의 연구실험 전체 과정이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출판사인 '휴마나 프레스(Humana Press)' 출간 교과서에 실렸다. 조 교수팀의 연구를 실은 교과서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국제 논문과 동일한 비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 도시녹화연구소 설립



■ 도시녹화연구소(소장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김성균 교수)가 설립되었다.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내에 설립된 도시녹화연구소는 도시녹화연구의 세계적인 메카, 도시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목표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 조경분야는 현재 양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박사 배출 수는 세계 1위이다. 신설된 도시녹화연구소는 이러한 고급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질적 수준 보강을 통해 조경 및 환경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 농생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과 자신감 함양을 위해 2007월 2학기부터 사회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왼쪽 사진)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농생대를 찾았다.

**Pioneer : 예술경영 CEO**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단장)의 특강이 지난 3월 31일 201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 중 발레 시연도 함께 이루어져 참석자들은 발레와 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했다. 최태지 단장은 자신의 꿈인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펼쳐온 활동들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사람에게 발레를 알리자는 취지로 14년 전 직접 기획한 '해설이 있는 발레'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아오고 있고, 이는 '찾아가는 발레'로 이어져 해남 땅끝 마을, 군부대, 초등학교 등 다양한 무대에서 발레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지 단장과 함께 농생대를 찾은 국립발레단의 김주원, 김현웅 수석 무용수는 작품 '지젤'의 2막을 시연했다. 참석자들의 눈앞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발레 공연이 펼쳐졌다.

**Sustainable : 녹색성장과 환경정책**

5월 6일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농생대를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성장에 대해 강연했다. 이만의 장관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지구 평균의 배인 1.5도였고, 지난 40년간 해수면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인 22㎝"라면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205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와 함께 2009년 10%인 녹색제품의 수출 비중을 2013년 15%, 2050년 35%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무하 교수,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 이무하 교수(농생명공학부)가 4월 2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제4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았다. 2008년 9월부터 제10대 한국식품연구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무하 교수는 국내 최초로 축산식품의 총체적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과학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4등급에 해당하는 도약장을 받았다.

# 이경준 교수, 제8회 가산상 수상



■ 이경준 교수(산림과학부)가 3월 1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임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재단법인 소호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8회 가산상(可山賞)을 수상했다. 가산상은 가산(可山) 심종섭 전 학술원장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된 상으로 산림분야의 학술, 교육, 산업 및 문화의 개발, 보급,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고 있다.

# 서울대 총장후보 선정 투표,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 1위 득표


오연천 교수

■ 5월 3일 치러진 25대 서울대 총장후보 선정 투표에서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가 과반의 득표로 1위를,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오세정 교수가 2위를 차지했다. 오 교수의 강한 추진력이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오연천 교수는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대' 비전 아래 'S.T.A.R. (Superior Teaching, Advanced Research) 프로젝트 10'을 제시했다. 특히 학문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교수 승진 및 평가 기준을 단과대학에 위임하는 한편 융통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재정은 2조2000억 원 규모 확충을 공약하며 등록금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교수는 농생대 주도 하에 강원도 평창에 조성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짐하고 농장, 학술림, 수목원 등 농생대 부속기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투표 결과 1, 2위를 차지한 오연천 교수와 오세정 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하며, 차기 총장은 교과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출되어 7월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상록문화재단 학부 장학생



종자산업 포럼


식목행사



국담재단 교수학술상 및 축산공로상 수상자

##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상록문화재단(이사장 한인규 명예교수)의 장학금 수여식이 3월 4일 농생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장학생과 장학금 출연자, 농생대 교수진 등 총 60여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 대학원생 10명, 학부생 16명과 목운문화재단 장학생 5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특히 장학금 출연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며 선후배 간에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종자산업 포럼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소장 식물생산과학부 고희종 교수)는 한국육종학회 · 한국종자연구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 대책,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자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3월 12일 201동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이영석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을 부양하고자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종자산업육성대책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식목행사 및 교직원 숲체험 산행

2010년도 식목행사가 3월 19일 수원 소재 칠보산학술림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현재 강원도 평창에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의 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데 필요한 조경수종의 묘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농생대 교수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려, 화살나무 등의 묘목이 식재되었다. 식목행사 후 칠보산학술림의 숲을 체험하고 칠보산을 산행하며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석자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직과정 설명회

산업인력개발학전공(농산업교육과)은 4월 7일 200동 2116호에서 2010학년도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직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직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송달용 교육연구관이 교직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특강하고 김진모 교수가 농생대의 교직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대표가 후배 학생들에게 체험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동물생명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국담축산학교육연구재단(이사장 농생명공학부 이무하 교수), 축산과학기술연구소(소장 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교수)와 농생대 동물생명공학전공은 4월 14일 농생대 201동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담재단 시상식에서 농생명공학부 윤철희 교수가 교수학술상, 홍원목장 신덕현 대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가 축산공로상을 수상했고 학부 및 대학원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계속된 심포지엄에서는 '동물생명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농생명공학부 김희발 교수와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사장이 발표했다. 이밖에 동물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도 향상을 위한 학생발표 경진대회, 행사 후원 기업들의 기업설명회도 개최되었다.

# 광양시와 산림자원 육성 발전을 위한 MOU 체결



박은우 농생대 학장(오른쪽)과 이성웅 광양시장

농생대(학장 박은우)는 전라남도 광양시(시장 이성웅)와 2월 24일 광양시청에서 백운산권 식물자원 증식 및 산림자원 육성 ·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백운산에는 1,000여 종의 식물자원이 분포해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백운산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양 기관은 백운산권의 멸종 위기, 희귀식물의 서식지 보전과 식물자원 증식 보급,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백운산권 산림자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 연구 증식을 위한 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Crop Functional Genomics 2010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과 한국식물생명공학회(단장/회장 농생명공학부 최양도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0 작물기능유전체학 국제심포지엄'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어 미국, 일본, 중국 등 15개국 100여 명의 외국인 학자와 600여 명의 국내 학자가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업단의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함께 발달생물학, 분자육종학, 생명공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저명학자 60명의 구두발표와 350여 편의 포스터 발표로 이루어졌다.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은 작물유전체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2001년 설립되어 지난 10여 년간 831편의 논문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발표했고 748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116억 원의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Composites

##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Composites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소재 보육단계 연구팀(책임자: 산림과학부 김현중 교수)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6일 농생대 75-1동에서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Composites"를 개최하였다. 국가청정지원센터, 현재자동차㈜, 한일이화㈜, NVH코리아㈜, 한양소재㈜, CJ제일제당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회에서는 'Biodegradable Polymers' 및 'Biodegradable Bio-Composites' 등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농식품안전 국제 심포지엄

## 농식품안전 국제 심포지엄

농생대 식품생명공학전공(WCU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식품안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월 28일 SPC농생명과학연구동 대형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농식품 안전 정책 입법을 주도 했던 Michael Doyle 박사와 1996~2006년 농식품 연구로 세계 최다인용연구자상을 받은 Barry Swanson 박사, 식품생명공학전공 WCU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동현 교수 등 농식품 안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농식품안전 관련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학증서 수여식

## 성적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10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5월 14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각 전공 성적우수학생 1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이날 행사에는 교수진 이외에도 장학생들의 학부모 2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장학생이 된 자녀와 제자를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김경원 CJ 부사장(오른쪽)과 이용환 연구부학장

## CJ그룹 캠퍼스 특별강연

농생대는 김경원 CJ 전략총괄 부사장을 초청하여 '그린바이오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CJ 그룹 캠퍼스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5월 19일 SPC농생명과학연구동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김경원 부사장은 환경문제 해결은 인류의 당면 과제라며, 이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그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녹색 New Deal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바이오 기술은 식량 부족,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그린바이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 태국 농학계대학 학장단 방문

태국 농학계 대학의 학장단이 농생대를 방문했다. 태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교수진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농학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미래 태국 농업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았다.

태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인 태국 Kasetsart University의 Voravit Siripholvat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방문단은 4월 6일 농생대를 찾아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을 둘러보고 서울대 및 농생대 홍보 영상을 감상했다. 또한 박은우 학장 등과 환담하고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 허브나라가 후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의 작품으로 남겨지길...

### 이두이 허브나라 농원 사장 (농학 66)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평창. 그곳에 허브나라를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두이 동문이 있다. 이두이 동문은 50대가 되면 자연 속에 살리라 마음먹은 꿈과 농업도 하나의 자연관광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허브나라를 시작했다. "이젠 농업도 생산성만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농사를 함으로써 도시인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 '허브'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때 시골로 내려와 허브나라 농원을 운영하면서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주민들의 마음 씀씀이, 외지인이 들어와 땅 투기를 한다는 오해, 새로운 계획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적 조항이 이 동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 동문은 힘든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항상 믿고 지지해주며 함께 일하는 가족의 힘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회상한다.

여고시절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이두이 동문은 남자와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또한 학문을 하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하고 싶어 농대를 택했다. 막상 농대에 진학했지만 자신의 가치판단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변한다는 사실에 전전긍긍하며 대학시절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한다. "오랜 고민 끝에 내 삶은 바로 오늘 하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연습림에서 많은 위안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두이 동문은 지금 세 손주와 아들, 딸 가족과 함께 허브나라에 살고 있다. "자연 속을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가 아닌 풍요로운 자연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준 것 같아 할머니로서 가슴 한편이 뿌듯합니다. 허브나라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하여 언제나 후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의 작품으로 남겨졌으면 합니다. 또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두이 동문이 농생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한다. "웰빙 바람이 불고 초록빛 연에 대한 그리움과 중요성이 더없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젊은 시절부터 큰 꿈을 가지고 크고 넓게 또 깊게 배우고 사고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더 커다란 미래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마지막 손길

### 우현미 디자인 알레 소장 (원예 83)



"우리가 하는 일은 인테리어, 건축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마지막 액세서리를 다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손길로 공간이 더욱 빛을 발할 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꽃과 식물로 공간을 스타일링하는 Interior, Landscape & Decoration 업체 디자인 알레의 소장 우현미 동문. 우 동문은 미국 New York의 IBM Building과 Ford Foundation의 실내 정원을 사진으로 보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에 막연히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학시절을 회상하며 화훼학을 가르치시던 故 염도의 교수님께서 '園藝'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이나 강의하시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추억했다.

인테리어 잡지 등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우현미 동문을 지칭하는 말은 플로리스트(florist, flower+artist)이다. 하지만 우 동문은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플로리스트라는 단어가 거의 생소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 누군가 플로리스트라 불러주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플로리스트가 아니고, 솔직히 플로리스트라는 호칭이 낯섭니다. 저는 꽃을 포함한 식물로 나의 감성을, 내가 표현해야 할 브랜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꿈과 감성을 펼치고 있는 디자인 알레에 대해서는 자신 혼자만이 아닌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회사라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당장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근시안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현미 동문이 농생대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조선일보 2010년 4월 5일자〉

[사람과 이야기]

# "34년간 100만그루 치료… 고사위기 정이품송 살려"

## 국내 1호 '나무의사' 강전유 원장



**[기사 요약]** 고목(古木) 앞에서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은 노(老) 의사는 겸손했다. 식목일(5일)을 나흘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430년 된 느티나무 앞에 국내 나무의사 1호인 강전유(농생물56) 나무종합병원 원장이 '진찰'에 나섰다.

**"올해 폭설로 아픈 나무 많아…"**

송파구 방이동에서 나무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강 원장은 1961년 서울대 농과대를 졸업하고 15년간 임업연구원 생활을 거친 뒤 1976년 국내 최초로 나무병원을 차린, 국내 나무 치료의 산증인이다. 요즘엔 유독 예약 대기 나무환자가 많아졌다고 한다. 올 초 쏟아진 폭설 때문이다.

강 원장은 지난달 12일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600살 먹은 보호수 향나무를 치료했다. 폭설로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이 향나무는 나뭇가지들이 잘려 나가고 몸통이 비틀리는 '치명상'을 입었다. 강 원장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뭇가지는 쪼개진 가지 중간에 철심을 박아 붙이고, 껍질이 벗겨진 곳에는 코르크 재질로 된 인공수피(樹皮)를 이식해주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나무를 살려야 사람도 산다"**

강 원장이 치료한 대표적 나무 환자는 속리산 국립공원의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이다. 700살 넘은 정이품송이 1979년부터 솔잎혹파리 같은 해충에 시달려 회생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구원자로 투입됐다. 3년 동안 2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들여 1000cc 170개 분량의 영양제를 주고, 인공나무 껍질 수술 등을 하자 정이품송은 다시 푸름을 얻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엔 솔잎혹파리로 죽어가던 북한 금강산 소나무숲에 왕진 다녀오기도 했다. 1976년 개업 이후 지금까지 치료한 나무는 100만그루가 넘는다. 나무 외과수술 한 건당 작은 소나무는 10여만원, 오래되고 비싼 나무는 1000만원을 받기도 한다.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따르면 국내 나무의사는 강 원장을 포함해 8명에 불과하다. "왜 30년간 나무에만 매달려 살아왔는지" 물었더니 "나무와 인간은 공존하기에 나무가 죽으면 결국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 식목일뿐 아니라 항상 나무를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 김성모 기자 사진 이재호 기자

〈매일경제〉

# "농업을 반도체 능가하는 첨단산업으로 육성"

## Agrigento Korea, 첨단농업 富國의 길

* 기사 해설: 매일경제신문 · MBN은 신문 창간 44주년을 맞아 지난 3월 제17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농업은 더 이상 낙후한 1차 산업이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매일경제는 신문 창간 44주년과 MBN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제1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농업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시했다.

매일경제는 먼저 농업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11층 규모의 빌딩형 농장을 만들어 1만 여명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일본에선 50여 식물공장에서 최고급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등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농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2대 농산물 수출 국가가 됐다고 했다.

'아그리젠토 코리아(Agrigento: 고대 농업 개혁을 통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시칠리 섬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이란 주제를 내건 이날 보고대회에서 매경은 서해안 간척지 3만ha를 농산업 특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해안에 새로 조성 중인 간척지 12곳을 3개 벨트로 묶어 거대 농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첨단 수출 농업의 전진기지로 삼자는 것. 또 농대 출신 대부분이 비농업 분야로 돌아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농진청을 통합해 세계 수준의 농업 관련 R&D센터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전체 농업 R&D 투자는 미국 몬산토 1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대규모 R&D 투자로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성역을 깨자"**

매일경제는 특히 잘못된 보조금 제나 '경자유전 원칙' 등이 농민을 보호한 게 아니라 농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농업 관련 '5대 성역'을 타파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올해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고정직불금도 단계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변동직불금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쌀에 대해서만 가격보전을 해주는 게 다른 농산품과의 형평 맞지 않고 생산구조를 쌀 중심으로 왜곡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 그 돈을 차라리 농촌 거주여건 개선이나 농산업 R&D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도 이미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43%(75만ha)에 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농업의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매일경제는 또 농민의 자금심 고취와 정확한 소득현황 파악을 위해 농민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 혜택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정진건 기자

# People 농생대 사람들

## [동문동정]

▶**배인태 동문**(농학 73)이 1월 28일 열린 한국종자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김풍진 동문**(농공 71)이 2월 대림산업 관계사인 삼호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노재화 동문**(농공 75)이 2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되었다.

▶**김원보 동문**(임학 73)이 2월 25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최민휴 동문**(임학 55)이 3월 2일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재선임되었다.

▶**박완수 동문**(식품 75)이 3월 10일 개원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이주복 동문**(식품 78)이 3월 31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권태호 동문**(임학 74)이 4월 16일 열린 한국환경생태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8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임승룡 동문**(농생물 55)이 4월 27일 취임식을 갖고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윤환 동문**(임학 56)이 5월 15일 열린 농생대 동창회 2010 상록의 날 행사에서 제8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 [교수동정]



▶**김완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2월 23일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에서 농산어촌어메니티학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한 이 학회의 초대 회장에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손정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와 원예학회의 주관으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시설원예 국제 심포지엄' 에서 '한국의 시설원예 현황과 발전방향'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전제 교수**(산림과학부)는 3월 11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목재공학회 2010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학래 교수**(산림과학부)는 4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종규 교수**(농생명공학부)는 한국반추미생물연구회장으로서 3월 23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동물영양생리 및 영양유전체 분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은우 학장**은 (사)한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및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회장으로서 5월 13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제10회 농식품생명과학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돈구 교수**(산림과학부)는 아시아 산림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복원 기술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이란,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5개국이 참여한 중앙 및 서아시아 편 "Keep Asia Green" Vol. IV 발간하였다.



▶**이희재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임되어, 농림수산식품분야 국가 R&D의 중장기 전략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종수 교수**(농생명공학부, 사진 오른쪽)와 **Kiyoshi Shimada 교수**(WCU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천안 단국대학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개인전 노년부 B조에 복식으로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 [동문회 소식]

# 농생대 동창회, 2010 상록의 날 행사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수상자

농생대 동창회는 5월 15일 201동 대강당에서 230여 명(방명록 작성자 기준)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 및 상록의 날 행사에서는 정창주 동문 등 7명의 동문에게 제8회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을 수여했으며,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지금까지 회장으로 활동해 온 제7대 한인규 회장이 퇴임하고 정윤환 동문이 제8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76학번이 준비한 추억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 서울대 남성 중창단과 농생대 동아리 샌드페블스의 공연 등으로 꾸며진 '76학번 졸업 30주년 기념사은회 및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후에는 축하 오찬을 함께 즐기며 동문 화합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7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0-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80-4986 F.871-1361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0-4528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작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